

오피니언

특별기고

김상윤



지난달 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되자...

로, 유선통신기기, 의료기기, 광섬유 및 광학요소...

수도권 규제완화 재고해야 한다

년까지 50%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광주의 경우 종사자수는 3천285명이 감소하고...

특히 첨단산업은 육상중인 광주는 정보

통신등 미래산업육성, 광(LED)산업직접화를 추진하고...

전남도의 경우 지역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IT, BT, NT...

약속권이 고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따라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유치 차질에 이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보다 해외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이번 정책발표는 국토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정책임을 재고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기업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서임방울국악진흥회 사무국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실물경제 '한파' 서민안정대책 시급하다

실물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광주에서 울어들어 10월까지 음식점 3천572곳이 휴·폐업했다.

전국의 10월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천명으로 3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서민층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다.

체감경기가 위헌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하소연은 얼얼이 아니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서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프로축구단 창단 시민 의견 수렴하라

프로축구단 창단 약속 불이행으로 K리그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광주시가...

사무는 아마추어지만 지난 2003년 시즌부터 광주를 연고로 뛰어들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광주시의 퇴출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문제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6년동안 창단 작업을 해왔지만 실패했다.

광주시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연고 모기업 구단', 컨소시엄 형태의 '시민구단' 등을 구상했으나...

광주시는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구단 창단 여부를 확실히 결정시켜야 한다.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상연



블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것을 비유할 때 연꽃을 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연꽃잎 표면은 3~10μm 크기의 수많은 혹(bump, 융기)들로 덮여 있고...

이런 연꽃잎의 자정 능력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독일 본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풀 손가락을 개발하기도 했다.

비단 내리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유리창, 물만 한번 내리면 깔끔해지는 변기, 비 한번 맞으면 청소가 자동으로 되는 자동차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 이유

있는 표면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물방울이 공기 위에 떠있는 모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물방울이 모이고 합쳐져서 무거워질 때 땅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된다.

이런 특징을 학술적으로 '연꽃잎 효과(lotus effect)'라 한다. 이를 처음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은 독일의 본대학교의 식물학자 빌헬름 바르틀로트(Wilhelm Barthlott) 교수였다.

한편 '초친수(超親水)' 현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면에 물방울이 묻으면 쉽게 펼쳐지는 초친수 현상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연구됐다.

초친수 성질과 연꽃잎 효과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활용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이처럼 나노단위에서는 표면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고

김민수



지난 6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에서 2008년 쌀 생산량 조사 시연회가 개최됐다.

매년 가을 정부에서는 그 해의 쌀 생산량을 발표하는데, 조사 결과는 농업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농업통계 신뢰도 더욱 높아야

확 등 정책수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행정기관에 의해 쌀생산량이 조사될 때에는 생산량이 과다하게 추계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과거 행정기관에 의한 쌀생산량 조사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여지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농업통계조사에서 대부분의 주요작물(벼를 비롯

한 15개 품목)에 대한 생산량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며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쌀생산량의 경우 주로 생 벼의 중량,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낱알수, 피해상황 등이 조사와 통계 분석된다.

현재에도 쌀생산량 통계에 대해 조사의 결과와 실제를 일치시키거나 조작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관에 의한 통계의 불신에서 비롯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쌀생산량에 대한 표본조사는 각종 선거조사에서 발생하는 표본조사와는 달리 비표본조차가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쌀생산량 추정방식에 대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표본설계와 비표본조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을 모색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전남대 수확통계학부 교수〉

기간제 교사 교육청서 일괄 채용해야

동생이 기간제 교사다. 얼마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풀이 죽어 돌아왔다.

동생이 기간제 교사다. 얼마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풀이 죽어 돌아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가 다른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동생을 가리키며 "저 언니"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개별 학교 단위로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기간제 교사도 임용이 끝나는 날까지는 엄연히 교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병동

無等鼓

조명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거리를 치장하는 축제를 뜻하는 루미나리에에 400여년 전 이탈리아에서 성자를 기리기 위한 종교의식에서 시작했다.

루미나리에



루미나리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구조물에 갖가지 색으로 칠해진 전구를 이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광주·전남지역도 5~6개 지자체가 지역상가 활성화를 명분으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

치로 삼권이 활성화됐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거한 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6억5천만원을 들여 설치된 목포극장 앞 루미나리에에 구조물이 강풍에 취약하고 LED 전등 접촉 불량 등으로 고장이 잦아 철거나 재설치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상권 회복은 대다수 지자체들의 현안이다. 그러나 루미나리에나 아케이드 설치 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